

쿠바를 여행하는 것을 열정을 찾아 떠나는 길이다. 쿠바의 그 어떤 것도 열정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쿠바, 그 매력 만점의 나라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그들의 열정 속에 녹아들어가고 만다. 아바나 비에하의 괴괴한 냄새가 나는 오래된 카페에서부터 말레콘을 철썩이는 파도 소리까지 아바나의 구석구석을 돌다보면 열정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따라갈 수 있다.



어디에 가도 여유로움이 넘치는 도시

아바나에서도 가장 먼저 발길이 가는 곳은 아바나 비에하(havana viaja). 아바나 비에하는 스페인 식민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자 여행자들이 볼만한 거리가 몰려 있는 지역이다. 성당과 광장, 파스텔 톤의 집들이 그림처럼 이어져 있어, 그 속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마치 흑백 영화 속에 들어간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수백 년은 된 듯한 건물들이 도시를 메우고 있고, 박물관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오래된 차들이 반짝거리며 거리를 유영한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건물 베란다에는 빨래들이 바람에 따라 나부낀다. 애절한 아름다움이라고나 해야 할까.

아바나 비에하를 걷다보면 미국의 국회의사당처럼 생긴 까삐폴리오가 눈에 띈다. 과학부와 환경부 청사로 쓰이고 있는 이 건물에 가면,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같은 자리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사진사를 만날 수 있다. 여유로운 웃음으로 아직



헤밍웨이도 사랑에 빠져버린 곳,

쿠바 아바나

글 채지형 여행작가, <http://www.traveldesigner.co.kr>



도 옛날 필름을 사용해서 즉석 사진을 찍어주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노라면, '이곳이 쿠바구나'라는 느낌이 밀려든다.

까삐톨리오는 넓은 계단이 있어서 아바나 시내를 조망하기에 좋다. 그 곳에 앉아 있으면 1950년대 모텔의 시보레부터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만든 노란색 꼬꼬 택시, 트럭을 개조한 낙타버스까지 쿠바가 아니면 볼 수 없는 '탈 것'들을 만날 수 있다.

올드 아바나의 중심인 오비스포 거리에는 암보스 문도 호텔과 엘 플로리디타라는 바가 있다. 이 두 곳은 헤밍웨이의 자취가 남아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세계적인 문호 헤밍웨이는 그의 열정을 아바나에서 불태웠다. 아바나와 사랑에 빠진 헤밍웨이는 암보스 문도 호텔에서 7년이나 살면서 글을 썼다. 밤이 되면 엘 플로리디타와 라 보데기타를 돌아다니며 칵테일 '다이퀴리'와 '모히토'를 즐겼다.



그의 대표적인 소설 '노인과 바다'도 아바나에서 조금 떨어진 고히마르 마을이 주 무대. 그 곳에서는 헤밍웨이가 살았던 곳을 박물관으로 꾸민 헤밍웨이 박물관에서는 자유와 낭만을 사랑했던 그가 남겨놓은 유품들을 볼 수 있다.

흑백 영화 속으로 들어간 듯한, 아바나 비에하 '체와 헤밍웨이, 그리고 음악' 열정의 이름들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위대한 이상으로 남아있는 체 게바라. 그의 쿠바에 대한 사랑과 열정 역시 헤밍웨이 이상이다. 아르헨티나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편한 길을 마다하고 쿠바의 자유를 위해 게릴라의 길을 택했던 그의 결단. 친미 독재 정권을 혁명으로 몰아내고 자유를 위해 싸우다 49세에 아깝게 세상을 뜬 체 게바라. 초등학교 교실에서부터 음식점, 길거리, 기념품 가게, 쿠바에서는 어디에 가더라도 체의 위대한 전설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아바나는 헤밍웨이와 체가 아니더라도 열정에 빠진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도시다. 눈만 뜨면 어디에선가 음악이 흘러나온다. 이곳에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춤을 추고 노래를 한다. 보통사람들의 특별한 에너지가 담긴 음악과 춤은 그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없는 열정의 모습이다.

아바나에 간다면 주말 시간은 비워두는 것이 좋겠다. 영화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배경이었던 나시오날 호텔에서는 매주 주말 멋진 공연이 펼쳐지기 때문이

Cuba Habana

다. 영화 속 주인공 대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 그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뮤지션들의 뿔어내는 열정 속에 빠져 있다 보면 영화 속에서 느꼈던 감동이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다.

나시오날이 아니더라도 아바나에는 멋진 재즈카페가 넘쳐난다. 5000원 정도만 내면 얼마든지 재즈에 푹 젖어있을 수 있다. 아바나의 밤들을 모두 점령했던 재즈 카페들,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밤새 쿠반 재즈에 빠져 있다 보면 피곤 하기는 커녕 오히려 충전이 되는 기분이다.

말레콘도 빠트릴 수 없다. '방파제' 말레콘은 자유로움과 낭만, 그리고 음악과 열정을 상징한다. 방파제를 넘어 도로로 달려드는 시원한 파도가 있는 그곳을 배경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한가로운 모습부터 남이 보든 말든 애정 행각에 빠져 있는 커플의 모습까지, 그곳에서는 쿠바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만날 수 있다. 현란한 살사를 보고 싶다면 아바나 비에하에 있는 오비스포 거리의 플로리다 호텔에 가보자. 아프리카 리듬이 강한 쿠바풍 비트를 배경으로 날아갈 듯 경쾌한 스텝을 밟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폭발할 것 같은 열기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 중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와도 환청처럼 귓가를 맴도는 쿠바의 소리와 열기들로 몸이 한동안은 계속 들썩거릴 테니 말이다. ☺

